

나주시 '로컬푸드 학교급식' 늘린다

내년부터 9→19개교로 확대

'나주형 푸드플랜' 활성화 박차

학교급식 선도 지자체인 나주시가 초·중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용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공급 확대에 나선다.

나주시는 올해 초등학교 5곳·중학교 4곳 등 총 9개 교에 시범 공급했던 로컬푸드 식재료를 내년에는 19개교로 확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확대 공급 대상 10개 초·중교는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는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인 '나주형 푸드플랜' 추진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했다.

나주시는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위해 최근 학교, 공공기관·복지시설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들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사용 확대 간담회'를 갖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급식 관계자들은 나주공공급식센터의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과 안전성이 보장된 로컬푸드 식



나주시는 최근 학교, 공공기관·복지시설 영양사 등 급식 관계자들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사용 확대 간담회'를 갖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주시 제공>

재료 공급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고, 향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나주시는 학교급식에 이어 공공기관에도 로컬푸드 확대 공급을 위해 노력을 쏟고 있다.

지난 2018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5곳과 로컬푸드 공급 확대 업무협약 이후 건강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량을 매년 확대해 가고 있다.

여기에 복지시설 6개소, 국립나주병원·전남도농

업기술원 등 공공기관 3곳에도 로컬푸드를 신규로 공급함으로써 공적 공급체계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로컬푸드 인증 제도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나주형 푸드플랜과 연계한 학교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등 공적 공급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내년도 예산안 6457억 편성...5.5% 증가

복지·사회안전망 중점·농림수산 181억 늘어...구 군수 "일상회복 최선"

화순군이 총 645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 대비 5.5%(334억원) 늘어난 수치로, 일반회계는 8.1% 증가한 5872억원이 편성됐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생활SOC와 사회안전망 확충, 주민복지 향상을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63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141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29억원, 아동수당 2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0억원, 영

유아 보육료 40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30억원 등 전년 대비 108억원 늘어난 1444억원 규모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 55억원,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30억원, 생물의약품 2차산업단지 조성 30억원,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46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원 등 253억원을 편성했다.

교통·물류·국도·지역개발 분야는 지방하천 정비 사업 66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억원, 농촌협약 사업 21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2억원, 버스단일요금제 운영지원 11억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6억원 등 총 668억원을 편성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금 141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108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 10억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지원 9억원 등 총 10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81억원 증가했다.

관광·문화 분야는 화순적벽 버스투어 관련 14억원,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정비 3억원 등 18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8일부터 화순군의회 예산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임진왜란 때 전 재산 팔아 군량비 대고 명종 별세 '서산일락가' 지은 시조작가

강진군, 오늘 해암 김응정 문학·삶 조명 학술대회

1567년 조선 명종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산일락가'를 지은 강진의 시조작가 해암 김응정 선생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가 강진에서 열린다.

강진군에 따르면 해암 선생 사후 500주기를 맞아 그의 문학세계와 삶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25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에서 연다.

'서산일락가'는 남명 조식 작품으로 교과서에 실렸지만 1980년대 들어 해암선생이 작가로 판명

되면서 새롭게 조명받은 작품으로 대한민국 시조사의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가 '해암 김응정의 지역활동과 문화유산', 전남대 김신중 교수가 '해암 김응정의 가곡집과 시조' 전남대 박명희 강의교수의 '해암 김응정에 대한 후대인의 평가와 그 의의', 주희준 강진일보 대표의 '해암 선생의 문헌을 통해 본 16세기 강진병영의 모습과

병영상인의 상업활동'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해암 선생은 강진출신으로 송강 정철 등으로부터 문재를 인정받아 여러관직에 추천받았지만 사양하고 향리 강진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삶을 마감한 사람이다. 임진왜란때는 전 재산을 팔고 소금을 만들어 의병장 고경명 장군에게 군량비를 댔다.

그의 시조 작품은 저서 '해암문집(解庵文集)'에 서산일락가를 포함해 8수만이 전하고 있지만, 오이건의 '김해암가곡집사'에는 그가 지은 노래가 100여 수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해암선생은 빼어난 시조 시인이자 효자이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전 재산을 팔아 군량비를 댔을 정도로 충성심이 강한 선비였다"며 "해암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 일은 강진의 정신을 되새기는 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박차'

2027년까지 수영장·축구장 등

함평군이 수영장과 축구장 등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동면 향교리에 들어설 종합스포츠타운은 1단계(2024년까지)와 2단계(2027년까지)로 나눠 준공되며, 총사업비는 423억원이 소요된다.

군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중기재정계획 반영,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쳤고, 최근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용역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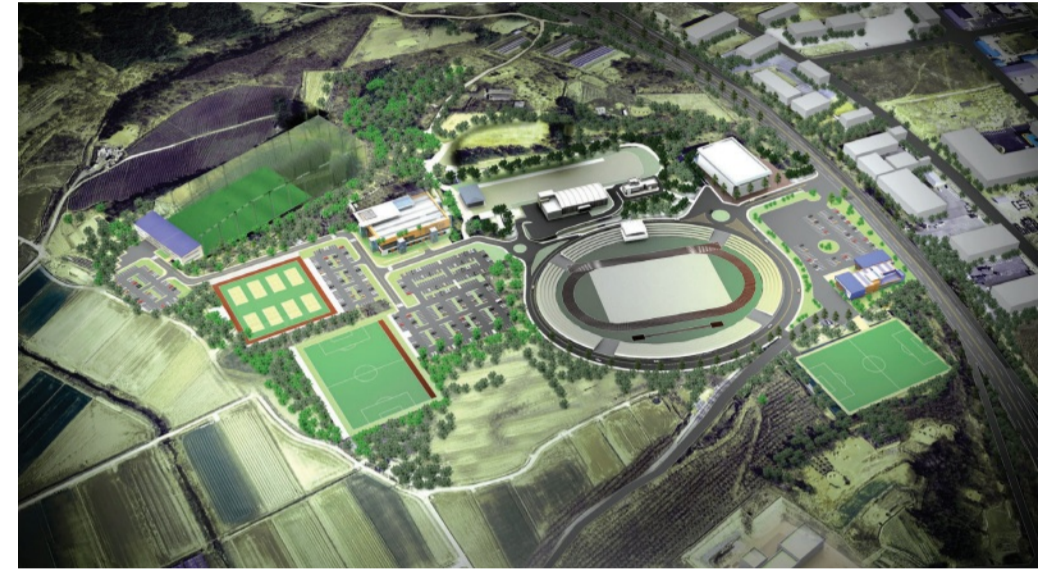
군은 1단계 사업으로 실내수영장과 체육관 건립을 목표로 한다.

실내수영장의 경우 지난 8월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이달 중 설계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체육관은 군 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본격 추진에 나선다.

2단계 사업으로 축구장 건립을 추진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2년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함평 실내수영장이 선정되면서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함평 종합스포츠타운 조감도.

담양군, 코로나 과로사 50대 공무원 '순직' 인정

코로나19 백신 관리업무를 보던 중 과로로 숨진 50대 공무원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담양군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를 거쳐 담양군보건소(故) 오정관 감염병관리 담당의 순직을 최종 결정했다.

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와 사명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순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

해보상법에 따라 유족에게는 연금과 보상이 지급되게 됐다.

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를 맡은 선별진료소와 격리시설 운영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 장기간 비상근무를 계속해오던 중 지난 6월 중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장성군민 '군정 베스트 10' 투표해 주세요"

군, 26일까지 온·오프라인 진행

장성군이 올해 추진한 시책·사업을 대상으로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군정 우수정책 베스트 10'을 선정한다.

장성군은 각 부서별로 추천한 시책·사업 36건 중 군정발전 기여도와 체감도, 부서장 설문 등을 해 '베스트 10' 후보군으로 압축된 15건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장성군 누리집과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추진하며, 오

프라인 투표는 설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성군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군정 우수정책 베스트 10'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군정 정책 '베스트 10' 후보에 오른 시책과 사업은 '국립신뇌혈관센터 설립 정부예산 43억 7000만원 확보', '국립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고속도로 장성 하이패스 전용 IC 확장', '유네스코 필암서원 세계유산 사업 공모 선정' 등이다.

/장성=김원호 기자 yongho@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